
		보 도 자 료			
담당부서	첨단교통연구처	처 장	고광용	(033-749-5400)	
		책임연구원	이승철	(033-749-5979)	
언론담당	소통홍보처	대 리	박지현	(033-749-5087, jihyun.park@koroad.or.kr)	
배 포 일		2022. 3. 15.(화)			
보도일시		배포 후 즉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 내비게이션에서 확인

가능해진다... 이달 중순부터 정식 서비스

- 국내 최초 전국 교통신호정보 수집·제공 기반 마련
- 카카오모빌리티 통해 정식 서비스 제공 위한 절차 돌입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 신호정보 모니터링 화면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은 전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를 활용한 기술개발과 지자체의 현장 인프라 구축 및 지원을 통해, 내비게이션에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기술개발과 관련 규격들을 정비했다. 양 기관은 경찰청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전국 교통신호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 이달 중순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현재, 교통신호정보는 대구시 협조로 국가산업단지(대구시 달성군 구지면) 내 자율주행차량 운행구간을 중심으로 도시교통정보센터에서 수집하고 있다. 대구시는 2025년까지 시 전역에 대한 신호정보 개방을 목표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노력하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수집 및 활용을 위해 관련 기술지원과 지자체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실시간 교통신호정보 제공에 참여하는 지자체에 따라 확대 예정

○ 해당 시스템은 도로교통공단에서 개발하여 경찰청 규격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C-ITS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도 자율주행차량과 커넥티드 서비스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다. 또한, 2021년 11월 대구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에서 공단 주관으로 개최한 합동시연회에서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율주행차 교차로 운행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 바 있다.

□ 또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도시교통정보센터로 수집된 교통신호정보를 이용해, 내비게이션에서 신호정보를 표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술 테스트를 완료했다. 본 사업은 정식 서비스를 위한 절차를 밟아,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일반 이용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카카오모빌리티는 안드로이드와 iOS 카카오내비 앱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개시하고, 우회전 후 보행자 횡단신호 점등 시 사전 안내(그림1) 및 전방 교차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그림2)를 제공한다.



<그림1> 우회전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 점등 안내



<그림2> 전방 교차로 신호등 잔여시간 정보

-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미래 교통 시스템 변화와 기술 발전에 발맞춰, 도로 이용자를 위한 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하고 교통 환경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공단은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대응하는 혁신적인 미래교통 전문기관으로서,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다양한 분야에 대한 선제적인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라고 밝혔다.



KoROAD

도로교통공단

“안전한 도로교통의 중심, 배려하는 교통문화의 동반자”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입니다.